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全)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95 비전 2000운동, 결실을 준비할 때

# 다음 주일은 전교인 만남의 날

### 다락방, 교회학교 100% 출석을 목표로 이삭줍기작전을

“듣는 사람마다 복음전하자”는 표어 아래 지난 10월 8일에 시작한 비전 2000운동이 오늘 36일째를 맞았다. 과연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가를 돌아보고 두 주 남짓 남은 승전감사의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때다.

오늘은 교구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I, II, III부 예배 후 교회당 앞에 교구별로 모여 기도한 후 나누어 가진 전도지를 들고 교회 부근으로 나가게 된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망설이던

이들이 노방전도, 심야전도 등을 통해 결신하고 교회 출석을 결정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다. 때를 언든지 못 언든지,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전도이다. 비전 2000운동이 해마다 갖는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행사와 행보를 함께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도와 전도의 생활이 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전 2000운동 본부는 다음 주일을 전교인 만남의 날로 정하였다. 각 교회학교와 다락방에서는 다음 주일에 100% 출석을 목표로 하고 이삭줍기 작전을 펴도록 한다. 특별히 각

다락방장은 다락방 식구들의 명단을 모두 작성하여 오는 수요일(15일) 다락방 공부 시간에 교구 담당 목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주일(19일)에는 출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출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두번 결석하면 교회와 멀어지고 주변의 권유없이 다시 발길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잃은 양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한주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찾은 한마리 양을 인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중등부 찬양대의 맑은소리, 고운소리 - 주일저녁 찬양예배는 다채로운 찬양의 순서들이 마련된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중등부 찬양대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우리교회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의 찬양예배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노라고 했다.

▼임명받는 70인 전도단원 - 또한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 복음전파의 사명감을 새로이 하고 효과적인 증거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은 전도단원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 눈물의 헌금 62억원!

지난 5일 우리교회 성도들은 교회 부지를 위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번 헌금은 현금과 작정헌금,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62억원으로 추산된다.

헌금의 계수를 맡은 집사들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바친 헌금봉투를 보며 성도들의 눈물과 고백을 보는 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바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이들이 과부의 동전 두 뿔뿔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바친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간 자신의 헌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교회에 시편드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 일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해 오던 성도들은 집계발표를 듣는 순간,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했다. L성도는 “우리교회에는 소문난 부자가 많은 것 같지 않았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기쁨의 눈시울을 적셨다. C권사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이같이 협력하면 앞으로 예배당을 완공하기까지의 많은 과정에 남은 어려움들도 헤쳐 갈 수 있으리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면서 더욱 힘써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에 넘치도록 더 많이 헌금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월)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헌금을 바쳤고, 타교회 성도들의 헌금도 계속되고 있다. 새 예배당의 뜰 어디엔가 새겨질 헌신자들의 명단에는 우리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전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새 예배당은 그 모든 이들의 기도로 세워져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헌신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할 것이다.

창세기 강해



# 잃어버린 형제들의 만남

(33장 1 - 20절)

이종운 목사

야곱은 20년 전,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하는 형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신했으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알고 형의 영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기 전날 밤,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일생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함께 역사하시어 마침내 두 형제의 재회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일행을 맞이할 때 400명의 무장된 군인들을 대동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몸을 일곱번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다가갔고, 에서는 달려와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맺힌 감정을 야곱에게 폭발하지 않은 것은 평소의 에서답지 않은 행동이었으며, 에서 앞에서 굽실거던 야곱의 모습 역시 그의 성격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 1. 두 형제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이 갈라섰어야만 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야곱도, 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과거지사를 거론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보다 오히려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도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지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에게도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화해와 연합이 가능합니다. 남북통일의 염원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소원 뿐이거나 맺힌 한을 풀기 위한 통일은 안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남북한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화해의역사도 주장하십니다.

## 2. 온전히 변할 때만이 참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사람보다 앞서 나가 에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그가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아내와 자녀를 포함해서 자기 소유물을 먼저 에서 앞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씨름하고 자기를 쳐 복종시킨 후 용기와 힘을 얻고 자신이 앞장 서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한 후 그는 강한 자가 되었고 자기를 정복하려고 오는 이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어도 변하지 않은 부분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후에는 계속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셨지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꾸신 후에도 여러 번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뇌물공세를 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화평을 사랑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로는 통일과 화합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에게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만에 만난 동생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형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에서가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세일로 가려던 약속을 깨고 숙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필경 또 한번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루이 이별했듯이 에서와 떨어져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을 어기고 세일에 오지 않음을 알았을 때 에서는 “형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던 동생 야곱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돌아온 야곱에게 친절과 관용과 용서를 보여주었던 에서는 후일 다시 야곱과 원수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거짓말로 외교하며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의 또하나의 약점은 그가 숙곳과 세겜에 거주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영역 밖으로 나간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 생각을 정직하

게 말했다면 현명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벨엘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도 되었다가 이스라엘도 되는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 하나님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자)’이라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그가 비로소 여기서 처음 제단을 쌓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제단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단을 쌓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위험합니다. 잃어버린 에서를 만나고 도망간 야곱을 찾는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도록 쉬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 “법과 질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가는 냉소주의를 어떻게 치료할까? 법치국가에서 무법자들이 판을 치고 매법자들이 법을 자기 필요에 따라 귀걸이로 삼았다 코걸이로 바꾸는 농간을 부리고 있는 터에 준법자만 손해를 본다는 피해망상증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는 죽을 죄를 저질러 놓고도 형벌만은 면제 받고 싶어하는 특혜지망생들이 많다. 법을 자신에게만은 유리하게 적용해 주기를 바라는 비열한 특권층도 있다. 법대로 법을 다루지 못하는 사법권은 자기고발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남들이 법을 버린다고 나까지 무법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법과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아니,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가 다릅니다. 날마다 후패해 가는 우리 걸사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변질되었거나 퇴보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했고, 조직화 되었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그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된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 창립의 초기부터 시작해 온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6일로 이제 여덟학기를 마쳤습니다. 연인원 5512명, 매학기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드는 목회자세미나는 이제 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창구가 있는 YMCA 대강당 로비는 월요일마다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만남의 장소요, 정보와 자료 교환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일년에 두번씩 거듭되는 일이지만 매학기 다른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목회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성회복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번 학기의 강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체적인 깨달음과 큰 도전이 있었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좀처럼 만나뵙기 어려운 석학들을 2교시 특강을 통해 한자리에서 만나면서 목회자들의 수강하시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변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로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첫 한 두 학기에는 2교시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배우는 것에도 익숙해지셨는지 2교시가 다 끝날 때까지 자리

■목회자 신학세미나 현장 스케치

#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최 중 시 (장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감)



▲ 강단에서 남을 가르치기 전, 배우는 일이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된다는 목회자들은 200분간 진행되는 세미나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연구에 몰두한다.

를 뜨시는 분 없이 수강하시고, 그 모습 역시 매우 진지하게 변하였습니다.

예배당도 아직 없어서 세미나가 있는 월요일이면 강남 YMCA 대강당에까지 이사(?)를 하다시피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이제는 남자 집사님들의 손발이 척척 맞아 그 큰 일들이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월요일에 한 번도 비가 안왔다고 감사하대시는 권사님들은 목회자세미나의 내용은 잘 몰라도 당신들이 새벽마다 나와 만드신 김밥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에 넘쳐 정성을 다하며 월요일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요소 요소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역시 그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자기 맡은 일을 좀더 전문적이고 창조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발전해가고 있습

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계속 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근각처에서 오시는 목회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달라진’ 목회자 세미나의 주된 변화요인이 됩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위상과 내용, 참여하시는 목회자들의 수강 자세, 봉사자들의 모습 등등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만큼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변신(?)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 봄과 함께 맞을 제 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준비하겠습니다.

- ▼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은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손을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上)
- ▼ 모세선교회(회장: 송민영 집사)가 맡은 유인물 배부 창구. 한 분에게라도 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다. (下)



▼ 서로에게 보내는 갈제 - 종강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 주님, 이 생명을 주옵소서!

'95비전 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게재합니다.)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김경아	원기연 박정홍 조은경	이영옥	임경희 김시영 김상구
김연옥	배상욱 김삼석 남현덕		김상아
무 명	김기순 이영희 윤형기	노송성	노창수 강운순 노승효
한정아	박종섭	조정옥	조병성 이영순 조명숙
주경자	고화자 백기봉 남기남		조길행 이순덕 조선행
박순봉	정순택 김영희 정애란		조복행 김용희 강봉해
김인숙	김영숙 김장수 고희순	이명영	배연용 김영남 이길봉
김진영	박일란 김진석 이수하		문병현
무 명	심영섭 유효숙 최순열		

■ 소식

### 초등부찬양대 어린이 초청 음악예배

초등부 찬양대(지휘: 조대영 선생, 반주: 홍혜란 선생)에서는 해마다 비전 2000운동 기간에 전도를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음악예배를 드린다. 올해도 「나는 주님의귀한 어린 양」라는 제목으로 오는 18일(토) 오후 5시에 2층예배실에서 음악예배를 드린다.

음악예배는 합창, 독창, 악기 연주와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의 양된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며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등 여러 부서 찬양대원의 찬조출연도 있다.

음악예배 후에는 간단한 다과회도 가질 예정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찬양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어른들의 도움의 손길은 오랜 기간동안 음악적인 실력 뿐 아니라 힘써 예배하기를 훈련해 온 초등부 찬양대에 큰 격려가 될 것이다.

### 이재권, 이영기 두 분을 협동장로로

당회는 지난 1일, 이재권 장로와 이영기 장로를 무임장로에서 협동장로로 모시기로 하였다. 두 분 장로는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와 타교회 시무를 중지한 상태였고 우리 교회에서 2년 이상 무용 봉사하였다. 협동장로는 당회에 참여하여 제반 사항 의논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의권은 없다.

### 장로 7인 선임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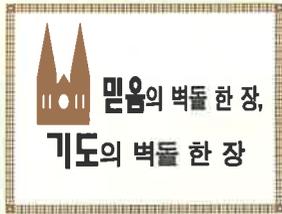
지난 7일 강남노회 정기회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 7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당회는 내년 5월에 투표를 통해 7인의 장로를 선출하기로 하였고, 선출된 장로들은 6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시취한 후 교회설립 5주년 기념일에 안수를 받게 된다.

### 대학부 정기총회

대학부는 지난 주일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회장에 채수풍 형제, 부회장에 황지영 자매가 선출되었으며, 선거 후 회원 배가를 목표로 하는 대학부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강남노회 제 17회 정기회 - 서울 강남노회 17회 정기회가 지난 7일 우리 교회당에서 있었다. 이 날 모인 서울 강남노회 소속 17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은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명 중심을 감사하며 간구와 결단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 ... 생업으로 경영하던 상점을 완전 정리하고 믿음으로 바친 ○○○집사님! "과부의 염전이옵니다. 주님! 받으소서"
- ... ○○천주교회 신자도 우리교회 건축헌금에 동참하였다고. 글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라도 소리를 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인가?
- ... 바치면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기뻐하는 서로의 모습에 성도들은 놀라기도 하고 격려도 받고 있다. 다윗도 생전에 못해보고 흠모하던 일, 후손 대대에 물려줄 예배당 짓는 일을 우리 때에 할 수 있음이 영광스럽기만.
- ...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억대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그렇게 표현하시니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아시리이다.
- ... 아직도 기도 중에 있는 가정, 내일이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 ... 우리 성도의 자녀 중 해외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교회 부지 계약 소식을 듣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미화 1000불을 보내오기도 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로 대성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수학한 목회자들이 서울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배운대로 한 몸된 교회관을 실천하고자 헌금에 동참했다.



### ■ 교우동정 ■

\* 할렐루야 찬양대의 피아니스트인 정은영 선생과, 사랑부 교사인 한정은 선생 (3교구, 정용철 집사 · 김윤자 권사의 딸과 자부)는 지난 8일(수), 포이동에 「참사랑 피아노학원」을 개원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다 칠 수 있게 하옵시고 작정한 것의 배로 바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2.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 수학한 목회자들에게 성령과 말씀 충만케 하사 민족교회가 갱신되게 하옵소서.
3. 비전 2000운동 7대 기도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 다음 주일 전교인 만남의 날에 잃은 양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